

4. 마을의 특징

1) 뒷실 우물

마을의 개척자 백후립(白后立)이 살던 집터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평소에 수온(水溫)의 차이가 없고 깨끗하며, 부녀자(婦女子)들이 불결(不潔)한 빨래를 하면 황토(黃土)물이 나왔고, 우물제(祭)를 올리면 다시 깨끗해졌다 한다.

2) 성황당(城隍堂)

뒷실과 솔평지에 각각 성황당(城隍堂)이 있어 성황신(城隍神)을 모시고 있다.

3) 안일왕산성(安逸王山城)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와 북면 두천리에 걸쳐 있는 신라시대 산성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울진현 고적 안일왕산성조에는 ‘석축주칠백오십삼척금폐(石築周七百五十三尺今廢)’로 기록되어 있다. 안일왕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작 당시인 1530년에는 이미 폐성된 것으로 보인다. 안일왕성의 축성 기원과 연대에 대해서 『울진군지』에는 ‘실직왕(悉直王)이 도적의 난을 피해 현의 서쪽인 소광리 세덕산 위에 석성을 축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안일왕성은 처음부터 석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 사료들에는 모두 ‘안일왕산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둘레는 753척으로 공통되어 있다. 753척은 당시의 교정 척도로 환산해보면 약 250m이다. 그러나 안일왕성은 실제로 약 1.1km 길이가 조사되어 753척은 초기의 크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6절 소광2리(召光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이 마을은 태백산맥(太白山脈)의 높은 산 밑에 있어 광천(光川)의 발원지(發源地)며 골짜기마다 마을을 이루고 있다. 마을의 동쪽은 소광1리 뒷실이고, 서쪽은 쌍전2리, 전곡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은 쌍전1리와 통고산(通古山)이 8km 거리에 있다. 북쪽은 군내에서 가장 높은 백병산(白柄山)[1130m]이 강원도 삼척군과 경계를 하고 있다.

1995년에 산림청(山林廳)에서 임도(林道)를 개설하여 36번도로[광천교]와 소광2리 대광

천(大光川)을 거쳐 백병산(白柄山) 허리를 돌아 봉화군 석포면(石浦面)과 연결되어 있다. 마을회관은 2005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 너삼밭

홈다리와 대광천새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화전민(火田民)이 너삼이 많은 곳을 개척하였다 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이 모두 떠나고 이름만 남아있다.

2) 널밭골(板田)

이 마을은 홈다리에서 서북쪽으로 2km 거리에 있는 백병산(白柄山) 계곡(溪谷)에 있으며, 옛날부터 화전민(火田民)이 살면서 밭이 많다 하여 널밭골이라 불렀다. 또는 넓은 바위가 있는 곳이라 하여 널바위골(廣岩谷)이라 부르기도 한다.

1980년대에는 대리석(大理石) 광산(鑛山)이 발견되어 달우광업소(達友鑛業所)에서 채광(採鑛)을 활발히 하였으나 품위(品位)가 낮아 지금은 폐광상태다.

3) 원터(院址)

고려시대부터 내륙지방에서 동해 울진으로 왕래하던 태백산맥(太白山脈)의 12령(十二嶺)의 길목으로 원[院:여관]이 있던 곳이라 하여 원터라 부른다.

4) 작은빛내(小光川)

큰빛내와 산등을 사이에 두고 계곡에 옛날부터 마을을 이루고 살았으나 지금은 지명(地名)만 남아있다.

5) 지심곡(池深谷)

큰빛내의 위쪽에 있는 계곡(溪谷)으로 깊은 소(沼)가 있다 하여 지심곡이라 부른다.

6) 큰빛내(大光川)

백병산(白柄山) 깊은 계곡(溪谷)에 있으며, 광천(光川) 원류(源流)에서 멀지 않은 산속 마을이다. 계곡마다 띄엄띄엄 한두 집씩 흩어져 있는 한가로운 마을이었으나 1966년 울진삼척지구(蔚珍三陟地區) 무장공비(武裝共匪) 침투(浸透) 때 이 마을 인근에서 격심한 전투가 있고 난 이후에 독가촌(獨家村) 집단이주계획(集團移住計劃)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마을 중심부(中心部)에 있는 2,000여 평의 밭을 정리(整地)하여 산골짜기마다 흩어져 있던 농가를

한곳에 이주(移住)시켰다. 이 마을을 ‘대강천새마을’이라 하였고 국비(國費)를 지원하여 기와 집 11동을 조성하였다. 1동에 2세대가 입주하여 무려 22세대가 새로운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농가소득(農家所得)을 위하여는 잠업농가에는 뽕나무, 축산농가에는 소를 입식시켜 주고, 농지조성(農地造成)과 농산물저장고(農産物貯藏庫), 공동퇴비장(共同堆肥場), 공동변소(共同便所)등 생활 터전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었다.

7) 평밭거리(平田)

흙다리에서 서쪽으로 1.5km 거리에 위치하고, 백병산(白柄山) 계곡과 옛길 울진(蔚珍) 봉화(奉化) 간에 있는 12령(嶺)의 길목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동구(洞口)에 도덕바위(道德岩)가 있어 모두가 생활이 안정되어 있으며 넓은 밭이 많다 하여 평밭거리라 불렀다 한다.

8) 흙다리(好音橋)

1680년경에 박진사(朴進士)라는 선비가 부락을 개척하였다 하며, 옛날 이곳 징검다리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가 아름답게 들린다고 하여 호음교(好音橋)라 부르게 되었다.

1947년에 이곳에 설립된 삼근초등학교 소광분교(召光分校)가 1954년에는 본교(本校)로 승격(昇格)되어 학생이 많을 때는 103명에 이르렀으나 1995년에 3명의 학생을 끝으로 폐교(廢校)되었다. 그 후 콘크리트 2층의 학교 건물은 이 마을에서 무상으로 대여받아 회관으로 정하여 다용도(多用途)로 사용하고 있다.

3. 가구 분포

총 42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셋재성황당(鳥嶺城隍堂)

북면 하당(下塘)을 거쳐 말내(斗川)를 지나면 내륙지방(內陸地方)으로 통하는 12령(十二嶺)의 하나인 셋재가 있는데 그 중턱에 성황당(城隍堂)이 있다. 목조건물(木造建物)인 이 성황당은 110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울진시장(蔚珍市場)과 봉화시장(奉化市場), 춘양시장(春陽市場)을 왕래(往來)하는 상인들이 바지개[조립식 지개로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버린다.]를 지고 이곳에서 쉬어갔으며, 또한 신변의 안정, 가정의 안녕, 안부(安否)와 연락장소 등으로도 이용되었던 곳이다.

그리고 상인(商人)들이 모금(募金)하여 공동으로 출자(出資)한 명단이 목판(木板)에 보

존되어 있고, 매년 선질꾼의 후손들이 당신제(堂神祭)를 지낸다. 최근 울진군이 개축하였다.

2) 울진 소광리 황장봉계표지석

울진 금강송면 소광리 황장봉계표석은 울진에서 봉화로 가는 국도 36호선에 위치한 장천교에서 5km 정도 들어간 소광리 도로변 대광천 계곡 옆에 위치한다. 주민들은 이 지역을 ‘장군터’로 부르고 있다. 이 봉계표석은 자연석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규모는 가로 245cm, 세로 195cm, 높이 86cm이다. 오른쪽에 가로와 세로 60여cm 정도의 공간에 19자가 새겨져 있으며, 왼쪽에는 세로 40cm 정도의 길이에 4자가 새겨져 있다. 글자 크기는 대체로 8cm, 한 획의 굵기는 8mm, 음각의 깊이는 약 3mm 정도이다. 왼쪽 면에는 ‘산직명길(山直命吉)’이라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 면에는 ‘황장봉계지명생달현안일왕산대리당성사회(黃腸封界地名生達峴安一王山大里堂城四回)’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표석의 내용은 황장목의 봉계지역을 생달현(生達峴)·안일왕산(安一王山)·대리(大里)·당성(堂城) 네 지역으로 하고, 이 지역을 명길(命吉)이라는 산지기에게 관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3) 울진금강소나무 육종림

산림청(山林廳)에서 대광천의 소나무를 육종림(育種林)으로 지정하였는데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묵은 천연림(天然林)인 소나무의 군락지(郡落地)를 자연 그대로 육종림(育種林)으로 보존하고 있다.

1865년(고종 2) 이래 경복궁(景福宮)을 중건(重建)하는 재목(材木)은 대광천(大光川) 육종림(育種林) 내에서 생산된 황장목[黃腸木; 울진금강소나무]을 사용하였으며, 최근 경복궁(景福宮) 복원 당시 이곳의 황장목을 사용하였다. 정부에서 이곳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기려 타임캡슐을 조성했다.

제7절 쌍전1리(雙田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이 마을은 사방(四方)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 앞으로 36번 국도가 지나가고, 답운재(畓雲峠)에서 발원(發源)한 냇물이 흐르고 있다. 마을의 동쪽은 삼근2리, 서쪽은 광회2리, 북쪽은 소광2리와 멀리 높이 솟은 진조산(眞鳥山)이 있고, 남쪽은 통고산이 높이 솟아있다. 마을회관은 2005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